

# 교수도, 50대 자매도, 4년제 대학생도, 세자매도 '노크' 전문대의 힘! 이색 입학생 넘쳐난다

일반대 교수도 관광경영과 입학자매 나란히 캠퍼스 즐기러 지원해마다 지원자·등록자 증가 추세



구미대학교 동문이 된 세 자매가 올해 입학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수가, 이수아, 이수지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새 학기 입학 시즌을 맞아 전문대에 독특한 사연으로 입학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는 일반대학 교수가 제2의 전공을 갖기 위해 전문대에 학생으로 입학하거나 세 자매가 나란히 전문대에 입학한 경우 등 유턴입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반대학 수학과 교수 출신인 윤성복(57)씨는 2018학년도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에 입학했다. 윤 씨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참여하고 전문대학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실무 지식을 쌓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2의 인생과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전문대 진학을 결심했다.

그는 "거제도가 관광산업이 주가 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참여하고자 한다"면서 "대학에 입학해 동급생들에게 큰 역할도 하고, 먹거리 산업을 관광화해 새로운 거제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제대 관광경영과 이현 학과장은 "그동안 형제나 남매가 입학한 경우는 봤지만, 일반대학 교수가 새 전공을 위해 성인학부자로 입학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분야 전문직업인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경대 3D프린팅과 입학생 김선구(37) 씨는 일반대학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다 전문대 입학을 결심한 케이스다. 김 씨는 "선진국에서

3D프린팅 분야에 많은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래 첨단육성 산업 중 하나로 정부 주력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신설되는 3D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미대학교에는 창녕 지역의 세 자매가 한 학교 동문이 되어 화제다. 이 대학 비주일게임컨텐츠과를 2016년 졸업한 둘째 이수가(24) 씨에 이어 올해 간호학과와 보건 의료행정과에 각각 큰언니 이수지

(27), 동생 이수아(20) 씨가 입학했다.

이수가 씨는 구미대 졸업후 (주)GDP 제품 디자이너로 취직했고, 수가씨 권유로 언니와 동생이 올해 동시에 입학하게 된 것. 첫째 언니 수지 씨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유턴입학한 경우다. 수지 씨는 "간호사라는 나만의 꿈을 찾는 만큼 내 분야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우리 세 자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해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고교시절부터 보건 의료행정 분야로 진로를 잡았다는 막내 수아 씨는 "학교 동문인 두 언니가 옆에 있어 든든하다"며 "성실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과 언니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구미대는 이들 자매에게 '가족사랑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에 다니다 유턴입학한 사례도 있다. 올해 여주대 국방장비과로 유턴입학한 손민혁(21)씨가 그 주인공. 손 씨는 "일반대학에서 한 학기를 마쳤지만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병대 부사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유턴입학을 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국가를 지키는 부사관이라는 전문직업인으로 거듭

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2인생을 꿈꾸는 자매가 나란히 경인여대 간호과에 입학한 사례도 있다. 주인공은 고순영(54), 고윤정(49) 씨로 두 자매는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함께 즐기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며 "간호사에 도전해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자매의 입학에는 자녀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전문대교협 황보은 사무총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학자들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원하는 직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대를 다니다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입학생'은 지원자와 등록자가 지속 증가 추세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전국 118개 대학에 유턴입학 지원자는 7412명으로 전년(6122명) 대비 2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자도 4.5% 증가한 1453명에 달한다. 유턴입학자가 진학하는 학과로는 간호학과가 전체의 42%로 가장 많고, 이어 보건(16%), 응용예술(7%), 경영/경제(4%), 복지(4%) 순으로 많다.

/한성우 기자 hys@metroseoul.co.kr

## 광주광역시 공무원 대상 '수요인권강좌' 진행

광주광역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수요인권강좌'를 지난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의 '내안에 고정관념 찾기'를 주제로 시작해 오는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5.18교육관과 광역스포츠클럽에서 진행되며, 시와 자치구 공무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직원 등 2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제1기 '내안에 고정관념 찾기'는 토론식 대화형 강의로 전국에서 인권의

다양성 강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인 김지학 소장이 사회적 특권과 억압에 따른 인간의 다양성과 인권에 관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인권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특강형 강좌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062-613-207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광주 북부소방서 코카콜라 광주공장 훈련

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에서 광주 북부소방서 대원들이 현지직용훈련을 하고 있다. 북부소방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장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장 관계자와 함께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전남 수목비엔날레, 학생들 예술 체험학습 지원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전라남도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개최되는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해 학생들의 예술 교육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목비엔날레에 참여하도록 행정을 지원한다. 전

남도는 학생들의 입장권 특별 할인, 예술 교육체험학습 안내자료 및 홍보자료 제공,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나선다.

앞서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수목비엔날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전통화를 주제로 하는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는 미래 세대에게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목화를 소재로 한 특별전시, 체험, 교육,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더브릿지(The Bridge)'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500스타트업 코리아

## 스타트업 인사이트 공유 '더브릿지' 론칭

아산나눔재단이 500스타트업 코리아(500 Startups Korea)와 손을 잡고 전세계 스타트업 인사이트 공유 사이트 '더브릿지(The Bridge)'를 론칭했다.

더브릿지는 전 세계 창업가, 투자자 등이 직접 작성한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스타트업 관련 정보 외에도 실리콘밸리 플레이어들이 개인 블로그나 매체에 기고한 경험담 등을 소개한다. 특히,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 매

니지먼트, 투자 유치, 제품 개발 등 스타트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희희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팀장은 "이번 협력은 아산나눔재단의 청년창업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더브릿지가 실리콘밸리와 한국 창업생태계의 교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창업가들이 더브릿지에서 영감을 얻어 혁신적으로 사업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취약계층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추진한다.

7일 LH에 따르면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세종시 관내 집수리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모듈러주택을 건축해 임대공급하는 단독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LH는 세종시 읍·면지역의 취약계층사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해 모듈러 단독주택 23동을 건축해 임대공급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이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서 조립만하는 일종의 공업주택이다. 기계화 생산으로 균일한 주택품질 확

보가 가능하고, 설치와 철거가 쉽다. 공장·현장작업 병행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부산지역 용호동 행복주택 14동을 모듈러공법을 적용해 공급한데 이어, 향후에도 지자체 협업형 모듈러주택 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안우 기자 yw964@